



재외동포 대상 '범죄피해 예방 세미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서 개최
범죄 예방부터 출입국 유의사항까지 폭넓은 정보 공유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향

Vol. 90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니 프라보워 대통령, 한경협 대표단 접견...경제 협력 강화 논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자료사진=프라보워 대통령 페이스북]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한국경제인 협회(한경협)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부통령도 동석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습 페르마나 대통령비서실의 전·언론·미디어 부국장은 “회의는 경제 협력 확대, 투자 기회 증진, 전략 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글로벌 무역 환경이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월 중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

한 바 있다. 당시 김 부회장은 2025년 4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사절단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행사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산업 확장 및 새로운 투자 분야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절단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성김 현대차 사장, SK플라즈마 김승주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현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고위급 기업인 24인이 참여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국과 같은 선진 기술 보유국과의 협력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이전 촉진, 시장 접근성 확대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에 대해 열려 있으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영원무역, 방글라데시에 섬유·패션 전문대 설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과 한국 대표단이 8일 방글라데시 국민관을 방문해 현지 관리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 제공

영원무역(대표 성기학)이 방글라데시에 섬유·패션 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 전언이다.

지난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 회장은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글라데시 국민관에서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수석 고문과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성 회장은 수개월 내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인 차토그람에 섬유·패션 전문대학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글라데시를 세계 최고의 섬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초반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영원무역은 차토그람 공장에서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나이키 등 스포츠·아웃도어 의류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대표단에는 영원무역뿐만 아니라 LG를 비롯해 섬유·패션·물류·헬스케어·에너지·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은 최근 차토그람에 위치한 한국수출가공공단(KEPZ)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약품 원료 생산시설과 병원 설립과 같은 다양한 투자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누스 수석 고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월 10일 한국 기업인을 위한 초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자신도 참석할 의향을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 설립도 제안됐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중기부, 해외진출 지원...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지역 (254명 기준) ▶							
구분	미국	중국	베트남	독일	러시아	일본	태국
지역	· LA · 워싱턴 · 시카고 · 뉴욕	· 베이징 · 상하이 · 천진 · 충칭 · 허노이	· 호치민 · 하노이	· 프랑크푸르트	· 모스크바	· 도쿄	· 방콕
구분	인도네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멕시코	칠레	사우디	UAE
지역	· 자카르타	· 뉴델리	· 알마티	· 멕시코시티	· 산티아고	· 리야드	· 두바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찌민 등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면 현지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 회계, 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센터 운영 방향과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국가별 현지 전문가와 선배 진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해 국내 수출 초보 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 온라인 세미나, 후속 상담 등을 지원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피해 기업에는 입주 평가 시 최고 수준인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입주 공간 부족으로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를 최대 4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

대한다. 아울러 대기 기간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https://www.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과 해외멘토단 운영 등을 고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포스트 동포사회부)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 264,251명 신청... 인도네시아는 5,477명 최다 기록

인도네시아대사관 5,112명, 발리분관
365명으로 모두 5,477명 최다 기록

A	B	C	D	E	F
제21대 대선 신고·신청 접수현황[집정] (영구명부자 제외)					
대륙	국가명	공관명	전체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총계			237,910	4,923	232,987
아주	인도	볼라이올영사관	474	0	474
아주	인도	헨나이올영사관	1,065	0	1,065
아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사관	5,112	5	5,107
아주	인도네시아	발리분관	365	0	365
아주	일본	일본대사관	16,386	609	15,777
아주	일본	고베총영사관	863	134	729
아주	일본	나고야총영사관	1,159	86	1,071
아주	일본	니가타총영사관	207	29	178
아주	일본	삿포로총영사관	597	16	581
아주	일본	센다이총영사관	349	36	313

※ 제20대 대선 대비 32,691명(14.1%) 증가, 제19대 대선 대비 35,946(12.0%) 감소
※ 신고·신청자 수 구성비 : 재외선거인 11.8%, 국외부재자 88.2%
※ 신규 신고·신청자 수 : 237,910명(공관 237,835명, 국내 75명)
5월 20~25일 전 세계 182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1대 대선 재외선거에 26만여명의 유권자가 잠정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신청 등록은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5,112명, 발리분관 365명으로 모두 5,477명으로 최고치로 잠정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4,614명보다 863명이 늘어났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인도네시아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는 인도네시아대사관 4,438명, 발리분관 176명으로 총 4,614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총 26만4천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23만2천987명,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은 3만1천264명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23만1천560명)에 비해 3만2천691명(14.1%) 증가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30만197명)와 비교하면 3만5천946명(12.0%) 감소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대륙이 13만1천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 7만7천938명, 유럽 4만4천708명, 중동 7천155명, 아프리카 2천901명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5만3천377명, 일본 3만9천712명, 중국 2만5천466명 순이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이달 30일부터 5일간 작성하고 선거일 전 30일에 해당하는 5월 4일 확정한다.

(haninpost 동포사회부)

재외동포 대상 ‘범죄피해 예방 세미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서 개최

범죄 예방부터 출입국 유의사항까지 폭넓은 정보 공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현)는 공동으로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사관 1층 강당에서 ‘동포사회 범죄피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내 동포단체 및 한인 기업인 등 약 80여 명의 재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범죄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동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한인동포의 각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사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내국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 역시 그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강원준 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범죄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생활안전과 출입국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국제관계국 Da Costa 국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과 예방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현지인의 법 인식 부족 및 교육 미비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며,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과 여권관리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 협약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어 김대진 경찰 영사는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 해킹, 송금 관련 피싱, 마약 범죄, 투자사기, 도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진화된 범죄 유형을 소개하고, 사건 발생 후의 처리절차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개인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지 대사관 자문변호사는 현지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유의사항을 짚으며, 특히 경찰 소환장 수령 시 참고해야

할 점과 현지 법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류완수 해외안전담당 영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한인 동포 사망 통계를 제시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윤영봉 비자·출입국 담당 영사는 체류 허가 및 출입국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일부 여행사를 통한 공문서 위조 사례, 한인업체 정직원 사칭 등의 실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미나는 12시부터 도시락 오찬과 함께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현지 재외동포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대사관과 한인회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삼성물산

OTIS

ThyssenKrupp Elevator

MITSUBISHI ELECTRIC

Schindler

베트남 대표 섬유 전시회 ‘2025 사이공텍스’, K-섬유, 현지 바이어 뜨거운 관심 받아

– 전시기간 중 13백만불 수출 상담 성과, 베트남·아세안 시장 공략 박차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베트남 호치민 SECC(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 ‘2025 사이공텍스(SaigonTex 2025)’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총 13백만불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사이공텍스’는 섬유기계를 비롯해 원사, 직물, 부자재, 액세서리 등 섬유산업 전반의 밸류체인과 미래 방향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섬유소재, 섬유기계 전시회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금번 ‘사이공텍스’에 총 24개국 1,070개사가 참가(34,000sqm)하였으며, 참관객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약 3만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튀르키예, 인도 등 주요 섬유 생산국이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베트남 현지 의류봉제기업과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

다.

섬산련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으로 3년째 한국관(기계 9개사, 원단/부자재 17개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원기계, 이화에스알씨, 다인인터내셔널, 대한패브릭 등 26개사가 참가하여 차별화된 K-섬유기계·텍스타일 제품을 선보여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시 기간 중 한국관 참가업체들은 총 641건의 상담과 13백만불의 상담성고를 거두었으며, 구매 의향과 샘플요청 건수 등으로 추산 시 향후 100만야드 이상의 신규 오더가 기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A홀에 참가한 섬유기계 업체들은 무봉제, 초음파, 연사기, 스마트 줄자, 코팅기 등 다양한 최신 장비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나원기계는 아웃도어 의류, 장갑, 신발, 안전복 등 전문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심실링 및 무봉제 공정 장비를 통해 높은 기능성과 생산성을 구현한 첨단 기계를 선보여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관을 방문한 Decathlon(베트남), Zara(스페인), STYLEM(일본) 등의 바이어들은 Recycled, Bio-based 등 지속 가능한 소재

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격보다는 차별화된 후가공을 통한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

안감용 원단 제조업체인 (주)대한패브릭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 안감은 물론, 스포츠웨어, 요가복, 생활복 등에 활용 가능한 고기능성 부자재로 호평을 받으며 상담을 이어갔다.

참가기업들은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향후 소재와 섬유기계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났다.

□ 섬산련은 홍보부스 내에서 참가기업 제품 전시로 샘플 디렉토리 역할을 하는 K-쇼케이스(K-Showcase)를 운영하며 바이어들이 세부 상담을 원하는 베이글 랩스, 다인, 방림 부스로 바이어를 안내하는 등 현장 상담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전시회 개최 전날인 4월 8일(화)에는 참가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시 성과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방안에 대해 논

의하며 참가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섬산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K-섬유기계·텍스타일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시회 참가 확대 및 맞춤형 바이어 유치를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섬산련은 오는 9.15(월)~9.17(수)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5 추계 텍스월드(Texworld Apparel Sourcing Paris)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유럽 비즈니스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9개 기업 공장 폐쇄 및 대규모 정리해고로 실업률 심화

인도네시아 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재 글로벌 수요 감소, 정부의 일방적인 인금 인상 조치 등 이중고를 겪으며 공장 폐쇄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기존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상률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에서 2025년 모든 주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6.5% 인상하는 신규 산출 기준을 도입했다.

수요 감소 대비 인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제품 생산비 상승과 함께 수입제품 대비 인도네시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사업 철수 및 축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 선고를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초 대규모 인원 감축과 함께 인도네시아 내 정리해고 수가

<2025년 연초(1~2월) 인도네시아 주요 정리해고 업체>

연번	회사명	업종	정리해고	비고
1	PT Sri Rejeki Isman Tbk (Sritex)	섬유	10,669명	- 인도네시아 최대 섬유 회사 - 2024년 파산 선고
2	PT Sanken Indonesia	전자·가전제품	450명	- '25년 6월 공장 운영 중단 결정
3	PT Yamaha Music Indonesia (Yamaha)	악기	1,100명	- '25년 Cikarang, Pulo Gadung에 위치한 2개 공장 폐쇄 결정
4	PT Fast Food Indonesia Tbk (KFC Indonesia)	요식업	2,274명	- 47개 매장 폐쇄
5	PT Tokai Kagu Indonesia	가구	195명	- 2025년 운영 중단
6	PT Danbi International	인조 속눈썹	2,079명	- 2025년 파산 선고
7	PT Mbangun Praja Industri (Bapintri)	섬유	267명	-
8	PT Adis Dimension Footwear	신발	1,500명	-
9	PT Victory Ching Luh	섬유	2,000명	-

급증하고 있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인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트럼프 관세에 흔들리는 베트남 의류 산업

美가 최대 고객...
의류 · 신발 수출액 40% 차지
협상 결과 종사자 270만명 고용에도 직격탄



▲지난 9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베트남 섬유 · 의류 박람회 ‘사이공텍스’ /니혼게이지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 의류 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46%의 관세율이 거론되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고용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의류 산업은 중국에 집중됐던 생산기지를 주변국으로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2024년 의류와 신발의 수출액은 총 599억 달러(약 84조 9500억 원)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미국이 전체의 40%를 차지하

는 최대 고객이다. 저렴한 베트남산 의류는 GAP, 나이키, 월마트 등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미국 시장에 공급돼 왔다. 미국 소비자들도 오랫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상호 관세가 본격화하면 베트남과 미국 간 공급망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호치민시에서 열린 섬유 · 의류 박람회 ‘사이공텍스’에서는 관세 이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25개국 · 지역에서 약 1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현지 업체 바오민텍스타일 관계자는 “관세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참가업체 히에우하오텍스의 도 응우옌 후인 최고경영자(CEO)는 “



합변의 법률상식

PT PMA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PT PMA(외국인 투자회사)는 설립 이후 운영 안정화, 확장, 투자 유치 등을 거쳐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내부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PT PMA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률적 요소를 정리하겠습니다.

1. 변화하는 법률 환경 대응
인도네시아의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기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투자법 및 산업 규제 변화 모니터링: 투자 제한 업종(Negative List)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내부 법적 리스크 관리
PT PMA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려면 내부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 검토 및 리스크 예방: 주요 계약에 중재 조항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법 준수 및 직원 관리: 근로계약 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 직원의 취업 비자(KITAS)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및 법인 관리: 정기적인 세무 감사 및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도입: 환경 규제 준수, 사회적 책임(CSR) 강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법,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통해 IT 기반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현지 네트워크 및 법률 전문가 활용: 정부 및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PT PMA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변호사 함상욱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공간 관련 법무, 회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 KEMEN-KUM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고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수출이 막힌 의류가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류 · 봉제업계 관련 국제 노동단체인 아시아최저임금동맹(AFWA)에 따르면 베트남 의류 산업 종사자는 270만 명을 넘는다. 베트남 통계총국은 전체 산업 종사자 수를 약 5200만 명으

로 보고 있다. 의류 산업은 전체 고용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 중 약 90%는 여성이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의류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인건비가 저렴한 지방에 있다. 의류 산업이 흔들리면 고용 불안이 지방 전반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호찌민 인근에서 봉제공장을

운영 중인 도니가먼트의 판꾸앙 아잉 CEO는 “작업자부터 기술자, 청소 직원, 경비 인력까지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혼란은 처음이다. 코로나 19 때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로 납부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디지털 송금부터 뷰티까지’ 아세안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서 뿔뿔 나는 국내 기업들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 부는 K 문화 열풍과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증가에 인도네시아에서 활약 중인 국내 기업에 청색 신호가 켜졌다. 인도네시아는 총인구 2억 8000만명에 달하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세안 최대 소비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5.03%를 기록하며, 2023년에 이어 연속 5% 이상 성장했으며, 명목 GDP는 1조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아세안 1위, 세계 16위 수준의 규모다. 인구 중위 연령은 29.9세로 매우 젊은 국가다. 한국과는 1973년 국교 수립 이후 우호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10대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꼽히며 전자, 소매업, 통신, 건설, 자동차, 광업, 석유, 생수 및 식수,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K팝을 넘어 K뷰티, K패션, K아트 등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인기가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화 소비나 관심이 늘고,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 수도 많아져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현황’ [2]에 따르면 23년 기준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인은 2만 5153명으로 21년(1만 7297명) 대비 약 67% 증가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 속에 국내 기업들은 현지서 간편하고 편리한 디지털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한국의 수준 높은 뷰티 서비스 및 보안 기술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니 시장에서 함께 성장 중이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대표 최성욱)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쉽고 빠른 절차와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낮은 수수료로 한국-인니 간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양국 모두에서 인기가 높다. 2016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송금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도 글로벌 앱/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양국 간 간편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다. 센트비는 모바일 앱 또는 웹을 이용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 국가로 최소 5분 이내 송금이 가능하며, 해외 현지 사정이나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카드송금,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등 다양한 수취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잦은 해외 송금이 필요한 이주 근로자, 주재원, 유학생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 외에도 센트비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교류가 활발하고,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이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체류자를 대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그들의 모국어로 무료 제공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여가 활동 지원하는 스포츠 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케이스타일허브(대표 박윤정)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에서 K-뷰티 브랜드의 맞춤형 유통·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케이스타일허브는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고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K-뷰티 브랜드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시장 반응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식약청(BPOM)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지 유통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 케이스타일허브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521개 대형 유통망을 통한 판매와 자카르타 중심지의 ‘언니스픽(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쇼피, 토코피디아, 틱톡 등 동남아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언니스’ 뷰티 어플리케이션으로 K-뷰티 제품의 안정적인 현지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수출 제품 수 1,140개를 달성하며 현지 맞춤 솔루션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정보보호 SW 전문기업 엘에스웨어(대표 김민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상시보안 취약점관리솔루션인 ‘시큐엠에스(SecuMS)’를 공급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시스템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들

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엘에스웨어는 지난 2023년 국내 제품으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청(BSSN)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로컬CC 인증인 SCCI를 취득한 바 있다. 엘에스웨어는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23년 시큐엠에스에 이어 올해에는 통합서버보안제품인 옴니가드(OmniGuard)도 인도네시아 BSSN으로부터 SCCI인증 획득하고 본격적인 수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지 공공기업부 소속의 국영기업인 수코핀도(PT. Sucofindo)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에스피씨(PT. Scada Prima Cipta) 등 영업 및 기술 파트너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의 정부, 공공,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경향

월간 KOGAZI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ZI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ZI(월간)

1) KOGAZI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인니 통한 환적, 법적인 허점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인도네시아 산업부 아구스 구미 왕 까르따사스미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회피하려는 국가들의 환적 허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 중 일부는 불법이지만 다른 관행은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구스는 지난 29일 하원 제7위원회 청문회에서 “환적 사례의 핵심은 산업부가 발급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SKA)” 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 상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인도네시아산(Made in Indonesia)’ 라벨을 획득한 후 목적지 국가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국내 경제에 거의 가치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산업부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최근 미국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32%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후 더욱 시급해졌다. 환적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였고 인도네시아에 이 허점을 해결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필라멘트원사 생산자 협회(APSyF)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따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가파른 수입 관세를 부과한 직후인 약 4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를 통한 중국산 제품의 환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레드마는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원사의 일종인 연신질감사(DTY)의 수출이 급증한 것을 지적했다. 당시 미국 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할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레드마는 지난 4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DTY를 수출한 적이 없던 두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갑자기 대량으로 수출한 것을 발견했다” 고 말했다.

이 회사들은 무역업체였는데, 현지 생산자들에게 이 회사들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레드마는 말했다.

레드마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SKA) 발급 권한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기관인 지방무역청(Disperindag)에 있다.

레드마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등 원산지증명서(SKA) 발급 절차를 강화할 것을 무역부에 촉구했다.

레드마는 수출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 수치만 늘어날 뿐 산업 실적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적자가 증가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미국과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 중이며, 인도네시아 관세가 경쟁국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양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양측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무역 채널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김재훈의 세무상식

2025년 자카르타 토지 및 건물세 (PBB)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5년 4월 8일에 2025년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 정책에 관한 주지사령 제281호를 발효하였다. 이번 주지사령을 통해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PBB-P2)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한다.

2025년 PBB-P2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PBB-P2 주요 면제

PBB-P2 원금 면제 정책을 통해 2025년도에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 A. 최대 NJOP가 IDR 2,000,000,000(20억 루피아)인 토지, 주택 또는 최대 NJOP가 IDR 650,000,000(6억 5천만 루피아)인 아파트
- B. 개인 납세자
- C. 물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NJOP가 가장 높은 물건 하나만 면제
- D. NIK가 온라인 세금 계정에서 검증되어야 함

2) 2025년도 PBB-P2 감면

이 인센티브는 다음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 주요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5년에 납부해야 할 PBB-P2가 50% 감면된다.
- 2024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PBB-P2 증가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감면된다.

3) PBB-P2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PBB-P2 원금 감면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 PBB-P2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제공되는 일종의

인센티브이다. 할인 금액은 다음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 A. PBB-P2 2025년도
 - 2025년 4월 8일 ~ 5월 31일 까지 납부시 10% 할인
 - 2025년 6월 1일 ~ 7월 31일 까지 납부시 7.5 % 할인
 - 2025년 8월 1일 ~ 9월 30일 까지 납부시 5% 할인
- B. PBB-P2 2020-2024년도
 -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 할인
- C. PBB-P2 2013-2019년도
 -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0% 할인
- D. PBB-P2 2010-2012년도
 - 2017년 지역 규정 제124호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 기간에 대해 원금 할인 외에 25% 할인이 제공된다

4) 행정제재 면제

가. 할부이자 형태의 행정제재 면제

-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PBB-P2 분할 납부한 납세자에게 해당
- 나.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형태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PBB-P2 납부자에게 해당
- 주지사령이 발효되기 전에 PBB-P2 원금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행정 제재를 받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지역 세금 청구서 또는 행정 제재 감면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세는 자카르타 지방의 모든 지역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지역 수입원으로서 국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



김재훈 대표

지만 정부 역시 국민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고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자카르타 지방세무국은 2025년 PBB-P2 인센티브는 납세자의 세무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고 세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자카르타 지방 정부의 지원 형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 세수입을 최적화할 수 있다.

Pusat Data dan Informasi Penerimaan
Badan Pendapatan Daerah Provinsi
DKI Jakarta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NOx 40ppm 이하



98%이상



99%이상



비례제어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폭 1,960-2,730mm



98%이상



90%이상



스텝제어

산업용 보일러 외길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광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제조공장(서산 소재)



www.dylboiler.co.kr

자카르타-부산 하늘길 언제 열리나... 직항 노선 지연에 인도네시아 동포사회 불만 고조

항공사 운수권 확보 후 미취항... “인천 경유 불편 커, 한인 단체 나서야” 목소리도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노선 2024.6.19.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직항노선을 배분 받은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2024.5.27.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 개설이 기대와 달리 지연되면서 현지 동포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르바란(이슬람 최대 명절) 연휴를 맞아 고국을

방문했던 동포들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조속한 노선 개설을 촉구하고 있다. 자카르타-부산 노선은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약 3만 5천 명에 달하는 동포들은 해당 노선이 개설되면 시간과 비용 절약을 물론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수도권 외 지역, 특히 영남권 출신 동포들에게는 고향 방문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운수권을 확보한 일부

항공사들이 실제 노선 취항에 나서지 않으면서 동포 사회의 기대는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11일간의 르바란 연휴를 준비하며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 동포는 “많은 동포가 염원하는 인기 노선이 될 것이 분명한데, 왜 실제 운항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자카르타에서 인천까지 7시간 넘게 비행한 뒤,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부산까지 가는 과정은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일부 동포들 사이에서는 항공사들의 ‘외면’을 비판하며 한인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동포는 “이미 허가

까지 받아 둔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것은 동포 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공사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인회 등 동포 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

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자카르타-부산 노선은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와 고국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계당국과 해당 항공사의 조속한 결단 및 노선 취항 계획 발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동포 사회는 해당 노선이 하루 빨리 현실화되어 고국 방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인포스트 동포사회부)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정겨운 우리말

쇼노라리 : 건달처럼 건들건들 놀며 세월을 허비하는 짓
예: 이러한 빈약한 문화를 가지고 조선 사람은 남보다 더 노라리 생활을 한다고 하던 한 선생의 말이 생각난다.(이광수, <흙>)
쇼노랑으로 :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
예: 땅에 웅숭그리고 시적시적 노랑으로 땅만 판다.(김유정, <금 따는 콩밭>)
쇼노상 : 언제나 변함없이 한 모양으로 줄곧
예: 김 장자는 자나깨나 노상 그 아들로 하여 은근히 걱정 중이겠다.(이기영, <봄>)
쇼논다니 :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쇼논폴다 : 어떤 땅을 논으로 만



들다.
아기가 기저귀에 오줌을 많이 싸다.
쇼놀소리 : 젓먹이가 누워 놀면서 입으로 내는 군소리.
예: 아기가 놀소리하는 걸 보니 순하네(비슷한 말: 웅알이)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외 50여권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Perkins



YANMAR



MITSUBISHI



FAW



DEUTZ



MTU



ISUZU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4월 21일, ‘까르띠니의 날’ ... 여성 교육의 문을 연 선구자

매년 4월 21일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은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의 선구자이자 민족적 자각의 씨앗을 뿌린 개혁가, 까르띠니(Raden Adjeng Kartini)의 생일로, 1964년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국가 독립영웅으로 지정되며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1879년 4월 21일, 중부 자바의 즈파라 지역에서 태어난 까르띠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란 여성이다. 그녀의 아버지 소스로닝그랏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에서 행정관료인 부빠띠(bupati)를 지낸 자바 귀족 출신으로,

까르띠니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식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유창한 네덜란드어를 구사하며 서양 문물과 사상에 눈을 뗄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12세가 되자 까르띠니는 당시 자바 귀족 여성의 관습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결혼 전까지 집 안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독서와 편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유럽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에 대한 사상을 키워갔다. 특히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윤



▲까르띠니 초상화 [자료사진]

리정책 책임자였던 아벤다논(J.H. Abendanon)과의 교류는 그녀의 생각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 결국 까르띠니는 중부자바 렘방(Lembang) 지역 부빠띠의 네 번째 부인으로 결혼했지만, 진보적 성향의 남편의 지

지를 받아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끝내 현실로 꽃피지 못한 채, 첫 아이를 낳은 지 나흘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고작 25세였다. 까르띠니의 이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은 사후에 발간된 서한집 《어둠에서 빛으로(Out of Darkness to Light)》를 통해서다. 이 책에는 그녀가 네덜란드 친구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가 수록돼 있으며, 여성 교육의 열망과 민중을 위한 삶에 대한 포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서한집은 네덜란드에서 5쇄를 찍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영어로도 번역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까르띠니의 정신은 이후 까르띠니재단 설립과 함께 여성 교육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여성학교가 속속 세워졌다. 그녀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삶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교육과 자각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도약이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소녀들은 매년 까르띠니의 날이 되면 그녀처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식에 참여하며, 선구자의 발자취를 기린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마리떼 키즈, 시나모롤과 유러피안 감성 · 사랑스러운 아트워크의 만남



레이어(대표 신찬호)의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MARITHE FRANCOIS GIRBAUD)’의 키즈 라인 ‘마리떼 키즈(MARITHE

KIDS)’와 산리오의 캐릭터 ‘시나모롤(CINNAMOM-ROLL)’이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 협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에서는 시나모롤의 라이트 블루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네이비 컬러를 조화롭게 활용해 시원하고 편안한 썸머 스타일을 제안하는 동시에, 시나모롤이 연상되는 구름 배경을 활용한 룩북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컬렉션에서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 원피스, 나일론 쇼츠 등 다양한 아이템이 포함되었다. 그중 오버핏 레글런 티셔츠는 마리떼 키즈의 클래식 로고와 시나모롤이 믹스된 그래픽이 특징이며, 시즌 메인 컬러인 스카이블루, 네이비는 물론,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의 라이트 핑크 컬러까지 총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또한 여아를 위한 슬리브리스

원피스도 공개되었다. 어깨에 덧대어진 프릴 디테일과 전면 부에 배치된 시나모롤 프린팅으로 사랑스러운 무드를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착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으로 제작되어 활동성까



지 놓치지 않았다. 함께 출시된 나일론 쇼츠는 얇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한여름까지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마리떼 키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볼캡과 여름철 바캉스룩을 완성해줄 PVC 소재의 크로스백, 시나모롤 헤어클립이 함께 출시되며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마리떼 키즈와 시나모롤의 협업 컬렉션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공식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출시를 기념하여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키디키디,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최대 10%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PT. YOU YEOUNG EMBROIDERY

최고수준의 품질과 뛰어난 광택!

100%의 폴리에스터 자수사로 원사 구매부터 연사, 염색, 와인딩, 품질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영 EMB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현재 약 1,500여 가지 색상 약 25만권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수십 년 동안 거래 경력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자수사
50D / 2합 (5,000M)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재생사: Recycled)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용도

신발, 가방, 모자, 텐트, 장갑, 의류, 침대, 소파, 시트, 특수편사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말실
75D / 2합 (144M)
스판 말실
60S / 2합 (5,000M~50,000M)
주문생산 : 인견사 120D / 2합

PT. YOU YEOUNG EMBROIDERY

Kawasan Industrial Millenium Jalan Millenium 12 Blok F2 No. 7 Kel. PeusarKec. Panongan,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 +62 21-599-2386 Mobile. +62 822-4980-4125 Email. ufoemb@youyeoung.com



‘독일 아웃도어브랜드, 중국으로’ 안타, 잭 울프스킨 인수

캘러웨이브랜드 · 탑골프 합병하며
4천억원에 매각



▲중국 스포츠웨어기업 안타 스포츠가 잭 울프스킨을 인수했다. 사진=잭 울프스킨

독일 아웃도어 스포츠 전문기업 잭 울프스킨(Jack Wolfskin)의 모기업이 다시 바뀌었다. 미국 골프 전문기업 탑골프(Topgolf)와 캘러웨이 브랜드(Callaway Brands)가 합병하며, 캘러웨이 브랜드는 중국 스포츠웨어 대기업 안타 스포츠 프로덕츠(Anta Sports Products)에 잭 울프스킨을 2억 5600만 유로(약 4133억 원)에 매각했다. 2019년, 미국 캘러웨이 그룹은 잭 울프스킨을 4억 1800만 유로(약 6751억 원)에 인수하여 미국과 일본 소매망을 통해 유통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해 잭 울프스킨은 실적 부진을 보고했고, 칩 브루어 캘러웨이 사장은 그룹이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2025 회계연도에 잭 울프스킨은 3억 2500만 유로(약

5249억 원)의 매출과 1200만 유로(약 194억 원)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안타 스포츠는 2024 회계연도에 708억 3000만 위안(약 13조 8055억 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잭 울프스킨은 현금으로 인수됐으며, 계약은 2025년 3분기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잭 울프스킨이 안타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안타 스포츠는 “안타와 잭 울프스킨의 강점을 바탕으로 공급망, 제품 개발, 소매 운영 및 기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수의 의의를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포에버21, 글로벌 브랜드로 건재... 폰드그룹 통해 국내 재도약



글로벌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Forever 21)이 어센틱 브랜드그룹(Authentic Brands Group, 이하 ABG) 인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확대하며 브랜드의 건재함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운영사(라이선스 파트너)의 파산은 브랜드 자체가 아닌, 특정 지역 운영사의 문제로, 포에버21의 글로벌 사업과 브랜드 가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BG는 2020년 시몬 프로퍼티 그룹(Simon Property Group), 브룩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스(Brookfield Property Partners)와 함께 포에버 21을 인수했다. ABG는 브랜드의 지적재산권(IP)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ABG는 “포에버21은 강력한 소비자 도달력과 잠재력을 가

진 글로벌 브랜드”라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브랜드의 핵심 사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상품과 경험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ABG는 브랜드 소유와 라이선스 중심의 ‘자산 경량화’ 모델로, 각 지역의 우수 파트너와 협력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폰드그룹이 포에버21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스포츠웨어 · 아웃도어 · 언더웨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기획 · 생산해 무신사를 비롯한 50여 개 주요 패션 플랫폼에 공급하고 있다. ABG 회장 제이미 솔터(Jamie Salter)도 최근 폰드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브랜드 전개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내 포에버21 운영사의 파산 소식이 있었으나, 이는 미국 내 특정 라이선스 운영사에 국한된 이슈로, 포에버21 브랜드의 글로벌 사업이나 IP에는 영향이 없다. ABG는 “미국 운영사의 구조조정은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이나 국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브랜드의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포에버21은 ABG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폰드그룹의 전략적 전개를 통해 포에버21이 다시 한 번 소비자와 만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혁신적 탄소배출량 및 전기료 절감 실현

베트남 2공장의 현지 경험으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주요생산품목

급유식 공기압축기 (Oil-Type)

·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인버터형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2단압축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 ~ 250kW
(50 ~ 350HP)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Oil-free)

·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2.2 ~ 40kW
(3 ~ 6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kW ~ 450kW
(50 ~ 60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저압 공기압축기
- Blower (0.4 ~ 1.5bar)
- Low Pressure Compressor
(1.5 ~ 3.5bar)

진공펌프 (Vacuum Pump)

· 스크류 진공펌프

압축공기 제습장치

·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 라인쿨러
· 에어필터

PT. COMPKOREA TEHNIK INDAH

Ruko Karawaci Office Park, Pinang Utara, Panungangan Barat Cibodas Tangerang, Ruko H-25
김태봉 법인장 : +62-811-932-689 E-mail : kimtb160@gmail.com / ptcompkorea@gmail.com

Lippo Cikarang지점
홍창선 이사 : 082113702540

한국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14 (가재리 396-6)
M. +82-10-2504-6443 E-mail : jr@compkorea.com



노드랩스, 도시의 유연함과 기능성 재해석

노드랩스가 25 SS 컬렉션을 공개했다. 노드랩스는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디테일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상복을 탐구하며 브랜드 특유의 감성과 실용성이 적절하게 믹스된 스타일로 브랜드만의 코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25 SS 컬렉션은 도시의 유연함과 기능성을 재해석한 것으로,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엔오또,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우터

엔오또가 2025 봄 시즌을 맞아,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봄 아우터웨어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가벼운 착용감이 특징인 플루이드한 실크와 나일론 소재를 활용하여 간절기에 적합한 아우터로 구성되었다. 크롭 보머 재킷, 숏 트렌치코트,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주요브랜드 2025 광고 촬영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스와로브스키,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한 팝 스타일
스와로브스키가 글로벌 팝 아이콘이자 브랜드 앰배서더인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한 2025 S/S 캠페인을 공개했다.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주얼리 속 아리아나 그란데는 1960년대의 세련된 팝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을 통해 눈부신 변신을 선보인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듀오 머트 앤 마커스가 맡았다.



프리마리오,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헌사

프리마리오가 봄을 맞이하여 25SS 컬렉션을 공개했다. 흘러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헌사를 프리마리오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스쳐 지나간 기억들을 아이템에 담아냈다. 이번 컬렉션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한 디자인들이 주를 이뤘다. 각 아이템이 갖고 있는 그래픽과 디테일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